



지면안내

- 의정소식 2~5면
- 주요처리안건 5면
- 제10대 도의회 총결산 (4년) 6~8면

- 상임위 활동 9~15면
- 의회운영 · 기획경제 · 행정보건복지 · 문화환경 · 농수산 · 건설소방 · 교육위원회

개 회 사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성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
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
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회
기인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우리 도의회
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300만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고락을 함께 해
온 동료의원님, 집행부 관계공무
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
께 축하의 말씀을, 그리고 안타
깝게도 뜻을 이루지 못한 의원님
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
립니다.

아울러 3선의 임기를 무사히 마
치고 영예롭게 퇴임하시는 김관
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
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도
청 이전, 일자리 창출, 참된 인재
육성 등 큰 발자취를 남기신 두
분께 3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수

고하셨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
원님 여러분!

4년 전 우리는
도민의 권익신장과
북리증진, 지역
사회 발전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할 것을 다짐하
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
든 열정을 바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처리한 조례안
543건 중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
례가 308건으로 전체 56.7%를
차지하였으며, 사상 처음으로 경
상북도 산하기관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
년간 의원님들께서 뿌린 땀방울
은 우리 웅도경북 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되리라 생
각합니다. 다시한번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래 먹거
리 창출, 인구감소 대응, 도민안
전 구현, 지방분권 실현 등 풀어



야 할 숙제들이 여
전히 많습니다. 남
북 정상회담과 북
미 정상회담, 국제
무역장벽 등의 큰
변화와 도전이 우
리를 기다리고 있
습니다. 아쉽지만
이런 문제들을 제
11대 도의회에 넘
겨주면서 잘 대응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도의회
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
니다.

최근 안동, 영천 등 도내 일부지
역에 갑작스런 우박과 돌풍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
절기를 앞두고 집중호우도 예상
됩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복구, 신속
한 피해보상 등을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300만 도민 여
러분!

이제 제10대 경상북도의회를
마무리해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가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본연
의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오며, 오는 7
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1대
도의회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
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00만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
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 6. 19.

경상북도의회 의장직무대리
고 우 현

경상북도의회, 제10대 의회 마지막 제300회 임시회 개최 6.19(화) ~ 6.26(화), 조례안 등 안건 15건 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직무대리 부
의장 고우현)는 6월 19부터 6월
26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0
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경상북도의
회 마지막 회기로서 『경상북도 대
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김
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이영우 경상
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고,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
별위원회를 열어 각종 안건을 심
사하고, 이어 6월 26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
하고 폐회했다. 🍌

제10대 경북도의회 4년 임기만료 행사 가져

신청사 이전, 산하 기관장 인사검증, 도정질문 일문일답 도입 등 성과

경상북도의회(의장직무대리 고우현)는 6월 26일 오전 11시 제30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제10대 도의원 전원을 비롯한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김상운 경북지방경찰청장, 경북도 및 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임기만료 행사를

가졌다.

제10대 도의회 임기만료 행사는 그 동안 도정 및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도정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간소하게 행사가 치러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고우현 의장 직무대리는 도민복지증진과 도정발

전, 명품 경북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김관용 도지사도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모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경북도정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준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편 제10대 경상북도의회는 역

사적인 도청이전, 전국 최초 100인 의정포럼 출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영호남 상생협력, 도 산하 기관장 인사검증 및 도정질문 일문일답 도입, 경상북도의회조례정비·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직무대리,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석

4. 27 ~ 30(4일간),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려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직무대리는 4월 27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김관용 도지사, 지역국회의원, 도 단위 기관장, 시장·군수를 비롯해 선수와 시민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도민체전은 도내 23개 시군에서 1만여명의 선수·임원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시부는 육상과 수영, 배구 등 26개 종목, 군부는 15개 종목에 참가해 상주시민운동장 등 31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맘껏 펼쳤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대한민국 문화융성의 중심인 경북의 위엄을 여실히 드러내듯이 개회식에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한편,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우호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이번 도민체전을 참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대표한 아흐마드 헤르야완 서자바주지사 내외 및 주체육회장, 우폐대학교 부총장 등 서자바주 교류단 20명과 전지훈련단 33명이 27일(금) 도청 신청사와 도민체전 개막식을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직무대리, 2018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참석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도민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6월 21일(목), 영천체육관에서 열리는 도내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큰잔치인 「2018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개막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영천시를 비롯한 23개 시·군

선수단과 영·호남 지역교류를 위한 전남어르신생활체육 선수단 70명 등 3,700여명이 참가하여 게이트볼,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체조 등 10개 종목에서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선보이며 6. 21(목) ~ 22(금), 2일간 영천체육관

을 비롯한 인근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날 개막 행사에는 고우현 도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비롯하여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

공식행사에는 최고령참가자인 게이트볼 박영달(남/89세/군위), 국학기공 김정선(여/93세/영천) 어르신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참가 기념패 전달식도 가졌다.

도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 “스포츠7330 실천으로 영원한 젊음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 간 서로 격려하고 친목을 다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기는 화합 축제의 장으로, 시·군 종합 순위는 가리지 않고 종목별로 시상하고 있다.

고우현 의장 직무대리는 축사를 통해 “오늘 대축전이 어르신들의 잔치만큼 그동안 쌓인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호인 상호간 서로 화합·소통하고 우정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봉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새마을운동 제창 48주년 「제8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참석

김봉교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4월 23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된 새마을운동 제창 48주년 「제8회 새마을의 날」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봉교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신재학 경상북도 새마을회장, 각급 기관단체장, 언론인, 새마을원로,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 운동 성과 영상물 상영, 새마을

중앙평가 우수 단체 시상, 도지사 및 도 새마을회장 표창, 기념사, 축사에 이어 국내외 다양한 인사들의 새마을운동 영상메시지와 참석자 전원이 새마을 운동 재도약의 결의를 다지는 새 출발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제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한다.

이날 김봉교 운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나라 근대화 산업의 선봉에 서서 열정을 다 바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 주역은 바로 경북 새마을 지도자님이였다.”며, “다시한번 새로운 시대, 역사의 중심에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이 당당히 앞장서 지난 48년 새마을 경험과 지혜를 슬기롭게 모아 새마을 정신을 실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새마을 운동으로 계승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봉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제21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참석

김봉교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5월 2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제21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봉교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노병수 영남일보 사장, 고병현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수상자 가족과 회사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 산업평화대상은 지난 1997년 처음 시행된 이래 올해로 21회째로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와 사용자를 발굴·시상해오고 있으며, 지역산업경제의 주역으로 인정받는 권위있고 영

예로운 상이다.

올해 근로자부문에서 포항시 소재 현대성우캐스팅(주)포항공장 정천균 노조위원장, 사용자부문에서는 포항시 소재 ㈜에이스엠 이규장 대표이사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와 사용자 등 10여명이 수상받았다.

이날 김봉교 운영위원장은 축하를 통해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노사가 마음을 열고 화합하는 기업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경상북도의회사무처(처장 김중권)는 4월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사무처 전직원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고인자 강사를 초빙해 ‘생각을 바꾸면 폭력을 줄일 수 있습니

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김중권 처장은 “공직사회 내 양성평등의식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사무처는 매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방지와 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제300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도지사('18. 6. 8)
- 주요내용 :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특산물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 근거 및 절차를 마련

▶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도지사('18. 6. 8)
- 주요내용 : 경상북도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도지사('18. 6. 8)
- 주요내용 : 도민들의 민원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개별법령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

▶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발 의 자 : 도지사('18. 6. 8)
- 주요내용 : 「도서관법」따라 현재건립중인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도내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교육감('18. 6. 8)
- 주요내용 : 초등학교와 그 병설유치원의 학교 정문 위치 변경과 신설 학교의 도로명 지번이 확정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18. 6. 19)
-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2007년 개정된 후 변동이 없어 타시도 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직 수당으로서 현실에 맞게 증액

경상북도의회, 제10대 도의회 총결산 (4년)

도민복지 확대와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

제10대 도의회는 전반기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 후반기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의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도민복지 증진과 서민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4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16년 2월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하고 전국 민 대상 공모를 통하여 여민관(與民館)으로 신청사 명칭을 정하여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열었으며, 전국 최초 '경상북도 100인의정포럼' 출범 등 입법기능 강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 등 지방분권 개헌에 전방향적 노력을 기울였고 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도정질문 일문일답 도입,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공동협약 체결 등으로 대내외적 교류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해외 친선교류 및 우호협력 강화, 울릉도 수해현장, 경주 지역 진도 5.8 및 포항지역 진도 5.4의 지진현장, 우박피해 현장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했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전원은

“지난 4년은 도청이 이전하는 등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를 맞이한 시기였지만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곁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신청사 이전.본회의(기념촬영)



경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상생발전 협약식



산격동의회 마지막 이사

●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열다

2016년 2월 경상북도의회는 산격동 청사 50년을 마감하고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신청사 명칭은 경상도 개도 700년을 맞아 민의의 전당이자 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여민관(與民館)'으로 정했다.

여민관(與民館)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도민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며, 경상북도의 새로운 중흥기를 이룩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명칭은 2016년 5월 26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다.

우리도의회 운영 현황 파악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신청사 이전 후, 타시도 16여 곳, 250여명이 찾아왔다.이제, 도의회 청사는 도민과 함께 24시간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의회 방문객들에게 의회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전·전시하고 있는 홍보역사관을 운영하여 도의회의 역사와 역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등 도민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의회교실 총 14회, 14개교, 1,150여명이 찾아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합리적인 갈등 해결능력, 정치적인 의사 표현능력 등을 키우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활정치를 몸소 체험하는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정책중심 의회운영, 입법역량 강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제5·6기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10대 의회 의정 연구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특히 지난 2016년 5월, 신청사 이전기념 행사로 개청식을 대신해 '지



경상북도 100인 의정포럼 출범식



도적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섰다.

한편, 2016년 12월 19일 도의회는 김관용 도지사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자·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도 출자·출연 산하기관이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만큼, 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제도를 통하여 기관장의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첫 사례로 2018. 1~2월 김천의료원장,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했다.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015년 3월 '상생발전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양 지역의 현안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및 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거대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경북·전남 양의회간 상생을 위한 전략추진사업으로 정책발전공동협의회 구성, 상임위원회간 공동연찬회 개최, 매년 양 의회 의장의 본회의장 방문연설, 양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보장을 위한 원자력안전보장협의회 구성·운용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협의·약속했다.

그 결과 현정사상 최초로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2016년 4월 26일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영호남 상생발전'을 주제로, 전남도의회 의장이 2016년 6월 24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상호 방문 연설을 했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회,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등과의 해외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을 강화하여 경상북도의 위상을 알리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제10대 도의회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30회 502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543건, 예·결산안 35건, 결의·건의안 123건, 승인·동의안 79건, 기타안 92건 등 총 872건의 안건을 처리

방자치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의 당면과제와 신도청 시대 경북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지역민과 함께 고민했다.

또한, 제10대 의회 전반기에는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의정포럼'을 출범하여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00명으로 7개 위원회를 구성해 분과회의 및 대표회의 16회, 23건의 정책제언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공했다.

그 밖에 의원총회, 테마별 선진행정 체험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와 워크숍 등을 열어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 개인 전문지식 함양에도 매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4년동안 처리한 조례안 543건 중 56.7%인 308건이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으로, 이는 9대 의회 172건 보다 79.1% 증가한 수치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제10대 도의회에서는 일하는 의회, 정책중심 의회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경북도의회 대외적 위상 강화

먼저, 경북도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만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하여 전방향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6년이 지난 지금도 중앙정치의 통제와 관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섰다.

2014년 8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맡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내용을 담은 「입법제안서」를 발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으며,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방분권 구현과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여 20대 국회의원 153명에게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서약을 받아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



전남도의회와 상생화합체육대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독도수호 결의대회



포항지진관련 도의회 긴급대책 회의



경주 지진 긴급복구현장 방문

했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지난 4년간 총 27회 73명의 의원이 26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과 시책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은 지난 4년간 89명의 의원이 89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경주·포항 지진피해 및 대책, 인공지능산업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대책,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경상북도의 실효적 정책방안, 도청이 전신도시 광역개발계획 수립 관련 등 대내외적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수립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정책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해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정책의 흠결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로 뛰는 정책감사를 펼쳐서 지난 4년 동안 총 365개 기관을 감사하여 시정·처리 503건, 건의·촉구 869건, 제도개선 22건, 수범사례 전과 6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현장중심의 활발한 상임위 활동도 전개되었다. 2017년 6월 도내 우박피해 현장, 11월 포항지역 진도 5.4의 지진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재해 현장의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민의 아픔을 함께 했다.

●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주요 현안 신속 대처

경상북도의회는 제10대 도의회 4년간 경북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지역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 마다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등 총 10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 왔다.

특히,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월 불필요

한 규제를 조장하는 조례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일제정비하기 위해 구성되어 도청 및 도교육청 현행조례 435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248건(57%)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여 경북도와 경북도 교육청에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015년 4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수범사례로 보고되기도 했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 9.12. 경주 규모 5.8 지진, 2017.11.15. 포항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진특위를 구성하여 지진피해에 대한 발빠른 복구와 향후 선제적인 종합 지진방재대책수립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2012년 제9대 의회에서 구성한 이후로 제10대 의회에서도 구성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2015년 7월 대구시의회, 2017년 2월 부산시의회와 각각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2017년 3월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한 7개 민관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 개최, 9월에는 경북도의회 지방분권특위 주최로 지방분권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지방분권 환경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했다.

그 외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우리나라에 설치된 24기 원자력발전소중 절반인 총 12기(울진6, 경주6)가 우리 도에 가동 중인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 운영상 안전관리 대책을 수시점검하고 도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6년 5월 정부가 행정예고 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 경북을 비롯한 원전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원자력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운영하여 민족의 섬, 우리 땅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 개최 규탄성명 발표,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규탄성명 발표 총 10여회 등 현안이 발생 할 때마다 즉각적인 대응을 했다.

특히, 지난 2015년 4월23일 제277회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최하여 경상북도의회의 독도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제300회 임시회 / 4년 총 결산

지역발전과 의회기능 · 위상 강화에 솔선!

행정사무감사, 건의 · 촉구 16건, 제도개선 3건 등 전체 19건을 지적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근거마련 등 많은 성과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일동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봉교)는 지난 6월 19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경상북도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 원안가결 하였다. 이번회기를 끝으로 제10대 운영위원회는 4년간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그동안 제10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과 의회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 · 조율하고 6개 상임위원회와 9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 반영하여 의회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운영위원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열정과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운영관련 21건의 조례 · 규칙 제 · 개정으로 불합리한 법령 ·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10개의 특별위원회 구성하였으며,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현지확인 및 연찬회 6회,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의회 기능과 위상 제고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 간담회 수시

개최, 탄력적 회기운영 협의, 영 · 호남 교류협력 추진 등 열심히 일하는 의회, 도민에게 힘이되는 의회상 정립에 힘썼다.

특히 신체 구급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도정질문 방식에 일문일답제를 추가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개정 등 다양한 입법활동으로 의회의 기능과 위상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각종 업무에 대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추진중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건의 · 촉구 16건, 제도개선 3건 등 전체 19건을 지적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 평가를 통해 문제점 파악과 도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경상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했다.

김봉교위원장은 제10대 마지막 회의에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운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고 말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그중심에 경북도의회가 자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봉교위원장은 지난해 부터 제10대 후반기 전국시 ·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을 역임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건의서” 등 10여건의 정책을 발굴, 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 실현에 앞장섰다.

그리고 전국시 ·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를 우리도에서 개최하여 전국시 · 도의회 운영위원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관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한 의회위상 제고에 노력하였다. 🍷

기획경제위원회

제300회 임시회 / 4년 총 결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공부하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기획경제위원회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제300회 임시회를 맞아 6월 1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고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현지확인을 끝으로 제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제10대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109건 등 총 288건의 안건처리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조례안 109건, 동의안 20건, 결의안 2건, 예산안 77건, 결산안 24건, 기타 56건 등 총 28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여 심의·의결하였으며, 현지확인 12회, 연찬회 6회를 통해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공부하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각종 조례안을 통한 활발한 입법활동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과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안’ 등을 의결하여 도내 청년들의 창업활성화와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안’,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여 지역의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6년과 2017년에 경주, 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지원을 위하여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감면동의안’과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의결하여 이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침체와 공동화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이전 중단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개선, 지방대학의 실질적 육성 등 현실적 대안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절대 불가함을 촉구하였으며, 도내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률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여 경북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경북 지방법원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65개소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부지런히 현장의 정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찬회도 실시하였다.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 시정처리 72건, 건의촉구 141건

제10대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72건, 건의촉구 141건 등 총 213건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감사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재 감사를 실시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도기욱(예천)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언제나 도민의 편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여기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되도록 많은 채찍과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00회 임시회 / 4년 총 결산

도민에게 힘이 된 열린의정 펼쳐!

자치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의정역량 집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경상북도의 자치행정과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와 도민의 건강 등을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원회로서 지난 4년간 자치역량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고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능동적이고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조례심사 118건 등 총 27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고, 17개 소관기관(부서)에 대해 4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활동 13회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서비스 개선과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제정·개정으로 체감의정 실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도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

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장애인의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일상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노인들이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인교육지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도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처리함으로써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의정을 실현하였다.

도민혈세 낭비를 막는 파수꾼 역할 충실히 이행

총 13회에 걸친 예산심사와 4회에 걸친 결산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효과를 점검하여 집행부의 책임행정을 유도하는 등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파수꾼

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17개 기관에 대한 4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사항 114건, 건의촉구사항 207건, 제도개선 사항 10건을 도출하는 등 도 및 출자·출연기관의 잘못된 업무 행태와 관행을 지적하고 바로 잡도록 하여, 도민 중심의 행정과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 하였다.

현장중심의 민생의정 펼쳐

평해어린이집, 문경지역자활센터, 향산복지회 등 소외계층을 돌보는 시설을 직접 찾아가 입소자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고 전남사회복지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가야요양병원 등 우수 기관의 운영사례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활용하고자 왕성한 현지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발생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시설인 들꽃마을, 민들레공동체를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민생의정을 실천하여 왔다. 🏠



의정자문단 분과회의



포항지진 피해 현지확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현장 속 의정활동 매진

제10대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배한철)는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 체육 활동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속 의정활동에 매진하였다.

문화환경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조례안 76건, 예산안 32건, 결산 12건, 업무보고 등 20건을 처리했다. 조례안은 76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의원발의는 59건을 처리했으며 주요 의원발의 제정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물의 재사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집행부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소통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78건, 촉구 142건으로 총 220건을 지적했다. 우수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일부 업무추진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하여 개선토록 하였다.

국제행사와 주요 사업추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일 또한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겼다. 3대문화권 개발 사업 현장,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건립 현장,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장, 전국체전 경북선수단 격려,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참여 등 현장 속 의정활동은 24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제10대 임기동안 국제행사는 실크로드 경주 2015,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등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행사의 성공개최를 지원하였다. 또한 현안사업으로 경주,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문화재 보호 대책 점검, 사드배치와 지진에 따른 경북관광이 위축되고 있어 관광공사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관광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날로 심해지는 소나무재선충 방제방안 마련을 위해 직접 포항 재선충 현장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에 대해선 과학적인 측정으로 우선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제10대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복지 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집행부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현지확인



경주 지진피해 문화재 현장점검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전 현장점검

농수산위원회

제300회 임시회 / 4년 총 결산

현장중심의 살아있는 의정활동 마무리

조례안 심사, 현장활동, 간담회 등 모범적인 상임위활동 전개



지난 6월말로 4년간의 상임위활동을 최종 마무리한 제10대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활동기간 동안 조례안 53건 등 총 13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고, 행정사무감사 4회 36개 기관, 현지활동 21회 79개소, 간담회·연찬회 31회,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6건 등 역대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한-중 FTA 타결 공식발표에 따라 '경북 농어업 피해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 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현지확인 활동, 한국농업경영인 등 농민단체를 비롯한 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 농수산분과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농어업분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또한, 농수축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청탁금지법 시행, 쌀 수급문제, 농산물 가격하락,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이상기후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 농업의 현실을 도내 농어업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 체형·관광에 이르는 농어촌 6차 산업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농어업 청년리더 육성, 수출 확대, 유통구조 개선, 품질 고급화로 경북 농어업의 명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수산자원 복원, 양식업 첨단화, 환동해 시대 대비 동해안발전 전략 발굴 등 경북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FTA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 온 농수산물 분야의 실효성 있는 피해대책 마련과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정부 및 도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촉구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상임위활동,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의정활동, 도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의 롤모델을 제시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

제300회 임시회 / 4년 총 결산

심없이 달려온 의정활동, 지속적 SOC구축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기여

[위원회 활동 주요성과]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명호)는 도청신도시 단계별 발전계획, 스마트도시 단계별 계획 추진,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과 안전문화 확산 및 풍수해 예방 인프라 구축, 터널·교량·도로·하천 등 주요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모색, 시설별 소방분야 점검 및 소방안전대책 마련 등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추진하여 수요자인 도민을 위한 일꾼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다. 예산·결산·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하여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 의정활동에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로 도민의 수익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최선을 다하였으며, 다양하고 복잡화된 시대에 도민이 요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전개,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입법 발의와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각종 정책대안 제시로 더불어 잘 사는 경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진, 태풍, 화재, 풍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상황 전파와 지역 특성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과 도민이 참여하는 재난예방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춘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고자 지역균형개발 추진,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과 친수공간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경북으로 거듭나고자 하였으며, 신도시·안전·SOC·소방분야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위원회 운영실적]

지난 2014년 7월부터 4년간 운영된 제10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조례 62건, 예산 48건 등 총 170건을 처리하였으며, 19번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도내 주요 도로·하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일선 소방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하였으며,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8회의 각종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2017년 7월에는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경북도의회 의원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방문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토론을 실시하고 상호간 교류를 통하여 화합을 도모할 것을 협력하였으며, 2016년 6월에는 충남도청 이전지인 내포신도시를 방문하여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와 정보교류 등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9.12 경주 지진 피해시 긴급하게 현지 방문하여 민간주택과 문화재 파손 등 재난 현장을 둘러보면서 재난에 대한 여론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을 안타까워 하며, 재난복구에 최선을 다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피해 현장 인근 경로당을 방문하여 불안해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안전점검으로 추가피해가 없도록 격려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각종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희생 정신으로 직무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사기 진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



영호남상생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



경주지진시 긴급현지방문



공사현장 현지방문

교육위원회

제300회 임시회 / 4년 총 결산

도민들과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경북교육 만들기에 큰 성과 보여

제10대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도교육청의 정책목표인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 ‘명품! 경북교육’을 구현을 위해 학생활동중심 수업 정착, 1만동아리 활성화, 학생수 감소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규모화 추진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현장방문, 지역여론 수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활동하였다.

지난 4년간 교육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를 보냈다. 2015년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 및 교육부 1인 시위, 전국을 떠돌며 했던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은 2017년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 학교 시설 긴급 복구사업, 특히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사태에 긴급히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를 독려하는 등 도교육청과 더불어 온 힘을 쏟았다.

또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추진을 위해 회기, 비회기 상관없이 다양한 교육현장을 찾았다. 특수학교 방문을 통해 장애학생 학교기업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경북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를 방문하여 현장에 맞춘 경쟁력있는 직업과정을 통해 고졸취업률 제고를 독려하였으며, 지역개발로 늘어난 학생을 수용할 도심 신설 초·중학교와 농촌지역의 교육 구심점을 하나갈 기숙형중학교는 신설 계획부지 확인부터 개교일 통학로 확보까지 하나하나 방문·점검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정책 신뢰 확보에 노력하였다. 특히 지진으로 학교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경주 산대초, 포항 흥해초 등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발빠른 대처를 주문하였으며, 경주·포항 지역에 한정된 내진 보강사업을 도내 모든 학교 시설에 내진 보강을 시행하는 “학교시설 지진내진 보강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10대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경북교육의 성장과 발전은 바로 도민 여러분의 경북교육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 덕분

으로 여기면, 지금도 경북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며, 앞으로 경북교육 발전과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





제10대 경상북도의회는
도민 삶의 현장에서
성숙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당선인 일동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어진 책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당선인 일동

